

가정배경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이 학생-교사 관계 및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

유백산* · 신수영**

초 록

본고는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배경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이 학생-교사 관계 및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가설과 문제를 수립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에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은 학생-교사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이렇게 강화된 학생-교사관계는 직업포부수준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목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정의 SES→개방적 의사소통→교사관계 그리고 개방적 의사소통→교사관계→직업포부수준 사이의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가정배경 수준에 따라 부모-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양식이 상이한 양상으로 존재하며, 이것이 계층 간 자녀의 성취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에 따른 청소년들의 성취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직업포부, 학생-교사관계, 의사소통양식, 개방적 의사소통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교신저자, postcentre@hanmail.net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I. 서론

청소년기에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세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이때 희망 직업은 삶의 가치관을 반영하며, 생애에 걸쳐 영위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 등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진로선택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특히, 직업포부는 단순히 직업지위에 대한 희망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루는 데 가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방과할 수 없다(Ashbly & Schoon, 2010; Sewell & Hauser 1975; Staff, Harris, Sabates & Briddell, 2010). 진지한 사유의 결과로 얻어진 직업포부는 개인으로 하여금 성취동기로 작동하며,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노력을 위한 단초가 된다. 청소년기 직업포부가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결과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O'Brien, Gray, Touradji & Eigenbrode, 1996; Trice & King, 1991; Wang & Staver, 2001)는 이러한 바를 뒷받침 한다.

주지하듯이 이 같은 직업포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선행연구에서는 그 가운데 직업포부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심경섭, 설동훈, 2010; 이경상, 강영배, 조주연, 2006; Behnke, Piercy & Diversi, 2004; Schoon & Parsons, 2002). 즉,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거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직업 및 진로포부가 높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꿈의 크기조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제약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일각에서는 부모나 교사 등 주위 성인(成人)들과 청소년의 관계가 포부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성환, 박상우, 2008; 이명진, 봉미미, 권순구, 2010; Admas & Singh, 1998; Coleman, 1988). 청소년들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게 되는 지지는 가정배경을 기반으로 한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나뉘는데, 물질적 지지로 인해 야기되는 포부 격차를 정서적 지지를 강화함으로써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른들로부터 존중받음은 개인이 주어진 환경의 불리함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유능감의 상실, 즉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극복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波多野諠余夫, 稻垣佳世子, 2001). 때문에 청소년이 주변 환경의 불리함을 인식하고 무기력한 진로관으로 포부수준이 낮아진다면, 부모나 교사와 같은 주변 어른들과의 사회적 관계 개선을 통해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작금의 계층 간 직업포부 격차에 당면하여¹⁾(경향신문, 2010), 주위 어른들과의 관계가 발휘하는 효과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개연성을 내재하고 있다. 일례로, Lareau(2003)에 의하면 계층간에는 상이한 양육방식이 존재하며 이것은 다시 의사소통양식으로 표출되는데, 계층이 낮을수록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강제하는 권위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반면, 계층이 높을수록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실현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기주도성과 권리의식(sense of entitlement)을 체득한 중산층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하고 권위적 인물들과도 상대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등한 의사소통과 기대를 바탕으로 한 부모 및 교사와의 교류가 청소년의 직업포부에 대한 가정배경 효과를 상쇄시킬 수단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는 계층차가 엄존하기에 역으로 그러한 불평등이 가중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과 관련하여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의 계층차이와 그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수행된 적이 없었다. 국내의 경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 간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김희수, 2003; 김희수, 홍성훈, 윤은중, 2005) 정도만 눈에 띈 뿐이다. 아울러 직업포부수준을 다룬 선행연구들 역시 관련된 영향요인보다는 변화수준과 그 양상에 초점을 맞추거나(어윤경, 2009; 유정이, 김지현, 황매향, 2004), 일부 학교 사례만을 대상(심경섭, 설동훈, 2010; 유정이 외, 2004; 이성식, 정철영, 2004; 이종범, 2005;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3)으로 한 것이어서 보다 엄밀한 분석에 의해 논의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술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가정배경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양식이 학생-교사관계 및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연구구모형과 주요 가설을 수립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전국 56개 초·중·고교 37,258명을 대상으로 장래희망을 분석한 <소득별·학교별 학생 장래 희망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부모 학력과 소득이 높은 외고 학생과 저소득층이 많은 특성화고 학생의 장래 희망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고에서는 고소득전문직 희망비율이 75.6%로 가장 많았던 반면,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는 중위직 이하 직업 희망비율이 각각 37.2%, 78.7%로 가장 많아 직업포부에서 계층차가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갈수록 고착화되어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심화되어가는 양극화 속에서, 청소년의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에 대한 실증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 및 설계에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 역시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직업포부의 개념

직업포부(occupational aspiration)란 개인이 특정시점에서 가장 좋은 직업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희망직업으로, 개인의 흥미나 능력 그리고 성취동기 등을 반영하고 있다(Gottfreson, 1981).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직업포부와 진로포부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진로포부(career aspiration)는 진로에 대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개인이 선택한 진로 안에서 성공과 성취를 동경하는 정도(O'Brien et al., 1996)로 희망직업 뿐만 아니라 기대 교육수준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희망직업인 바, 직업포부 개념으로서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직업포부는 해당 직업을 획득하기 위한 인적자본의 성취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고 진로계획의 기준이 되며(O'Brien et al., 1996; Trice & King, 1991; Wang & Staver, 2001), 이후 획득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Ashby & Schoon, 2010; Hansen & Haller, 1973; Schoon & Parsons, 2002; Sewell, Haller & Ohlendrof, 1970). 다수의 연구를 통해 동일한 교육적 성취를 거두어도 직업포부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직업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됨으로써 직업포부가 이후 직업성취를 기능할 수 있는 잣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하경화, 2002).

2.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능력이나 성향은 학생의 직업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청소년은 자기 성향 및 능력을 준거로, 직업의 진입장벽을 기능하게 된다. 이때 주변의 지지에 따라서 직업포부는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는데, 주변으로부터 받게 되는 지지는 크게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물질적 지지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며, 이에 따라 그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한다. 한편,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특히 부모나 교사 등 주위 어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때 수반되는 애정과 기대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물질적 지지가 다소 약하다 할지라도, 강한 정서적 지지로써 이를 보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적 요인

먼저 직업포부수준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성별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Gottfredson(1981)은 성별과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직업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후 다수의 관련 연구에서 남성이 직업 희망에서 사회적 지위와 도전성을 중시하는 반면, 여성은 가정활동 병행 가능 여부가 특정 직업을 희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Eccles, 1994; Meinster & Rose, 2001).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에서도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직업포부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김정숙, 2006; 심경섭, 설동훈, 2010).

다음으로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학업성취를 꼽을 수 있다. 특히 학력·학벌주의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학업성취수준은 상급학교 진학의 지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포부수준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 Sewell et al.(1970)은 학업성적이 직업포부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대학생들의 학벌(심경섭, 설동훈, 2010)이나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수준(공윤정, 2011; 김정숙, 2006; 정지혜, 2006)은 직업포부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환경적 요인

직업포부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부모의 직업과 가구소득을 들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직업 및 진로포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심경섭, 설동훈, 2010; Behnke et al., 2004; Schoon & Parsons, 2002). 나이가 교육적 경험과 직업 선택의 범위는 계층에 따라 달라지며(Walkerdine, Lucey & Melody, 2001), 특히 여학생은 계층이 높을수록 남성지향적인 직업을 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Guttman & Juli, 1991).

한편, 학교의 진로진학환경도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지혜(2006)는 학교소재지의 빈곤정도에 따라 직업포부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아울러 일련의 연구(송영숙, 1998; 정윤경, 2005; 정정은, 2004)에서는 학교 진로교육과 학생의 진로발달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특히 학교의 진로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체로 진로발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Bajema, Miller & Williams(2002)는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학습과, 학교에서 느끼는 안정감을 직업포부 형성에 있어 중요한 지원적 요소로 꼽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특기소질 개발뿐만 아니라 진학환경까지 포괄하는 의미의 학교진로진학환경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일반계 고교 간 학교 영향력의 편차를 주어진 자료 내에서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3) 가정배경에 따른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이 학생-교사관계 및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가능해진 시기이다. 특히, 상술한 청소년의 개인적 특질들은 자기 인식의 주된 근거로 작용한다. 이때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역시 자신의 객관적인 조건이 되며, 이러한 조건들과 희망직업 진입장벽의 상대적인 크기 비교에 따라 직업포부는 조정된다(Gottfreson, 1981). 특히, 자신에 대한 물질적 지지의 기반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의 경우, 그러한 불리한 환경을 인식하고 학습함으로써 진로결정에서 자기 불능화(self handicapping)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계성(sense of relatedness)은 불리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波多野諄余

夫와 稻垣佳世子(2001)는 진로선택에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타인과의 온정적 교류와 자율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Berk(2009) 또한 적응유연성(resilience)의 측면에서 부모나 교사 등 자신을 지원하는 성인(成人)의 존재는 부정적 환경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며 롤모델 등을 제시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생-교사관계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소속감이나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이현주, 2005).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학생-교사관계는 하루 일과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직업포부 수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주, 송병국, 2011; 이명진 외, 2010). 구체적으로 이명진 외(2010)에 따르면 교사의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는 직업포부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정배경이 좋을수록 교사의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제도 내에서 좀 더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이²⁾ 학생-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Lareau(2003)는 중산층과 하위계층 간 양육방식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양식의 차이에 대해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산층 자녀들은 부모와 민주적인 토론으로 이뤄지는 일상적 대화를 통해 권리의식(sense of entitlement)과 자기주도성을 체득하는 반면, 하위계층 자녀들은 가정의 일방적이고 엄격한 지시로 이뤄지는 대화를 통해 사회에 대한 순응, 즉 제약의식(sense of constraint)을 체화하고 있었다.

즉,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추론과 지시, 토론 및 협상을 기반으로 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자녀들은, 교사나 가정 밖 연장자와 같은 권위적 인물들과도 상대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하는 법을 터득함으로써, 자신들의 개인적 선호를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양육과 생활지도에 있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이때의 내·외적 태도나 행동을 총괄한다(김희수, 2005). 이러한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매개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장해순, 2005), Barnes & Olson(1982)은 자녀의 자율성과 부모의 수용 정도으로써 개방적 의사소통(open family communication)과 역기능적 의사소통(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으로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을 구분한 바 있다. 본고에서도 Barnes & Olson(1982) 논의에 입각하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개방적 의사소통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추구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이들의 자율성과 유능감을 강화하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유백산과 황여정(2011)에 따르면 합리적 의사소통에 기반한 부모-자녀 관계는 임원경험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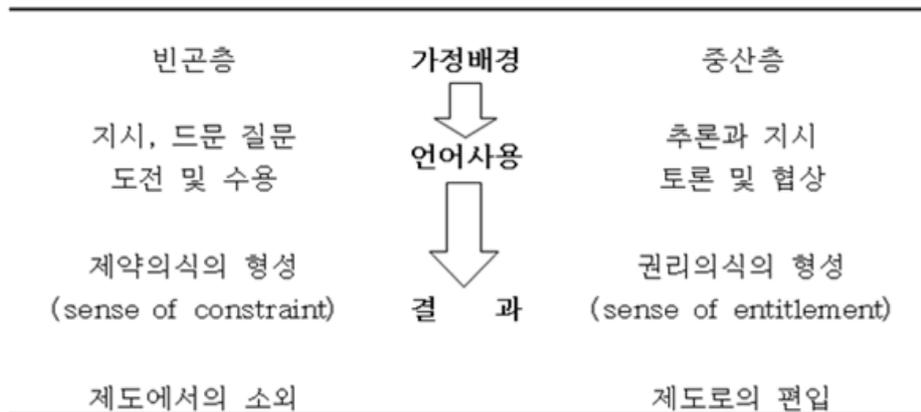


그림 1. 가정배경에 따른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Lareau, 2003 재구성)

이외에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양식은 자녀의 사회심리적 발달 특성에 영향을 끼치는데(김희수 외, 2005), 구체적으로 자녀는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부모의 지지를 인지하며(김경화, 2011), 나아가 수평적·온정적 의사소통 여부는 진로장벽 지각(McWhirter, 1998)뿐만 아니라 보다 적절한 진로선택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희수, 2003; 김희수 외, 2005; Birch & Ladd, 1997; Osipow, Carney & Brack, 1976). 한편,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고된다(민하영, 이윤주, 이영미, 2004; Lober & Stouthamer-Loeber, 1988).

결과적으로 중산층 청소년들은 하위계층 청소년에 비해 자신들의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자율감을 가지며 나아가 진로에 대해서도 유능감을 느끼기 쉽다(이명진 외, 2010; Lareau, 2003). 이러한 연구결과는 계층이 낮을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수평적인 대화와 온화한 교류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

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술한 논의에 입각하여 부모-자녀사이의 개방적 의사소통양식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가져다주는 다양한 편익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가설 및 문제를 수립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에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양식은 학생-교사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나아가 학생-교사관계는 직업포부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직업포부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부모-자녀 사이의 추론 및 협상 그리고 이해에 기반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은,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자녀의 포부수준이 형성되도록 기여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³⁾

셋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학생-교사관계 그리고 직업포부 사이에는 매개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정배경의 영향력과 의사소통양식 등의 효과를 검증한다.

3) 김희수 외(2005)는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진로결정 및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로의식 수준은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윤경(2009)은 진로상담 빈도가 잦은 대학생은 직업포부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대상이 상급학년에 비해 학업성취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포부를 크게 가질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는 점과, 첫 번째 직업포부수준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첫 번째 직업포부수준은 과장보고(over-reporting)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 점에서 개방적 의사소통과 직업포부수준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더라도 그 관계는 약하거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중2패널 3차년도(고등학교 1학년) 자료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중다전망적 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를 바탕으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들을 2003년(중학교 2학년)부터 2008년(고등학교 3학년 졸업 이후 1년차)까지 6년 동안 반복 추적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3차년도 고등학교 1학년생 3,085명 중, 분류불가 및 무직을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생 2,022명의 학교 및 가구자료를 활용하였다. 본고는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포부수준을 견지하면서 고교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구명하고자 고등학교 1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변수설명 및 연구모형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직업포부는 학생들이 응답한 가장 희망하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 수준으로 구성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명목척도로 구성된 각 문항의 한국표준 직업분류 소분류에 Ganzeboom과 Treiman(1996)의 ISEI(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값을 부여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⁴⁾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국제표준직업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Occupation)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세부 직업 명칭을 연결하여 ISEI 값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일 높은 점수의 직업은 의료진료 전문가(88점)였으며 도공, 유리가공 및 관련 종사자(22점)가 제일 낮은 점수에 속했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잠재변수들과 측정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잠재변수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는 부모의 직업과 가구 월평균 소득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⁵⁾ 구체적으로 부모의 직업은 한국표준직업 소분류로 측정된

4) 국제간 직업위세를 비교한 Treiman(1977)은 경제발전 단계가 같지 않은 국가 간에도 직업위세는 비슷하며, 사회구조가 변화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내의 직업지위를 조사한 유홍준, 김월화(2006) 연구에서도 국제 사회경제지수(Ganzeboom et al., 1989)와의 상관관계는 .632($P < .001$)로 나타났다.

부의 직업에 ISEI 값을 부여하여 사용하였으며, 가구소득은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을 측정된 문항으로 편포의 문제를 고려하여 자연로그 값을 취한 후 모형에 투입하였다.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양식은 가정생활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 중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반영하고 있는 3개 문항(5점 척도)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였으며 이들 세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32이었다. 한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은 교육연한으로 바꾸어 모형에 투입하였다.

학업성취는 지난 1학기 국어, 영어, 수학 각각의 성취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한 3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신뢰도는 .570으로 나타났다.⁶⁾ 다음으로 학생과 교사관계는 5점 척도로 측정된 3개 문항이 관측변수로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이며, 이들의 신뢰도는 .747이었다. 끝으로 학교 진로진학환경은 5점 척도 문항 2개 값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현재 다니는 학교는 진학에 유리하지 못하다.”, “현재 다니는 학교는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로 이들 문항의 신뢰도는 .676이었다.

하단의 그림 2에 제시된 기저모형은 전술된 이론적 배경 및 변수들로 구성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인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양식이 학생-교사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전학기 학업성취수준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이 통제되었다. 마찬가지로 학생-교사 관계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된 주요 변수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취수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 학교진로진학환경 수준이 공히 통제되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5) 본 연구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부의 직업과 가구소득으로 구성되었다. 종래의 연구 다수는 학력과 소득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잠재변수의 관측변수로 사용해 왔는데, 학력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형성지표(formative indicator)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배병렬, 2009; Kline, 2011). 응답자의 SES 수준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교육연한이 반드시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체적인 수준에서 직업지위 점수와 학력수준은 상응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6) 측정오차를 모형화 하여 통제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다소 낮은 신뢰도도 표본수가 충분히 클 때는 용인 가능한 것으로 보고된다(Little et al., 1999).

3. 자료분석 및 결측치 처리

본 연구는 전술한 연구가설과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두 단계에 걸쳐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모형을 통해 계층에 따른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 격차와,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학생-교사관계 및 직업포부수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Sobel 검정을 통해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⁸⁾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직업포부수준 격차 및 결정요인의 상이한 배경을 고려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 구조 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 검정작업을 실시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모수추정을 위해 사용한 방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다. 결측치 처리는 임의 결측(missing at random)이라는 가정하에, 구조 방정식 결측치 처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진(Arbuckle & Wothke, 1999)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FIML은 다중 대체법과 비슷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양분 외, 2010). 이상의 통계분석에는 SPSS 17.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전체모형

1) 모형적합도 및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여기서는 먼저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χ^2 검정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로(Kline, 2011), NNFI, CFI, RMSEA 지수를 사용하여 모형 적합성을 평가하고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chi^2=326.955$, $df=77$, $p<.001$; NNFI=.934, CFI=.958, RMSEA=.040)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⁹⁾

8) 본 연구에서는 FIML을 통해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AMOS 프로그램의 기술적 문제로 bootstrapping 추정이 불가능하여 Sobel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연구 모형의 적합도

Df	Chi-square	NNFI	CFI	RMSEA
77	326.955***	.934	.958	.040

* $p < .05$ ** $p < .01$ *** $p < .001$

아울러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의 모수추정치 역시 $p <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며, 각각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표준화된 계수 값은 최소 .470 이상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모형과 자료의 적합성 그리고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2)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치

본 절에서는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들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요연구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그림 3에 제시되어있다. 분석결과, 앞서 이론적 배경을 통해 논의했던 바와 같이, 가정의 SES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양식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양식은 학생-교사관계에도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강화된 학생-교사관계는 자녀의 직업포부 수준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Parameter			b	β	SE	CR
개방적 의사소통	←	가정의 SES	.39***	.15	.09	4.23
부모기대교육수준	←	가정의 SES	1.35***	.27	.19	7.05
학업성취	←	가정의 SES	.56***	.29	.10	5.89
학생-교사관계	←	가정의 SES	.03	.01	.09	.32
직업포부수준	←	가정의 SES	.32	.01	2.05	.15

9) Hu & Bentler(1999)에 따르면, CFI와 NNFI 는 .95 이상 그리고 RMSEA .06 이하를 좋은 모형 적합도(good fit)로 볼 수 있다.

Parameter	b	β	SE	CR
학업성취 ← 개방적 의사소통	.15***	.19	.02	6.01
학생-교사관계 ← 개방적 의사소통	.12***	.13	.03	4.34
직업포부수준 ← 개방적 의사소통	-.85	-.04	.56	-1.52
학업성취 ← 부모기대교육수준	.04***	.11	.01	3.73
직업포부수준 ← 부모기대교육수준	1.64***	.16	.26	6.27
직업포부수준 ← 학생-교사관계	1.43*	.07	.65	2.20
학생-교사관계 ← 학교진로진학환경	.08***	.15	.03	3.28
직업포부수준 ← 학교진로진학환경	.73*	.06	.35	2.10
학생-교사관계 ← 학업성취	.24***	.20	.05	5.19
직업포부수준 ← 학업성취	6.52***	.24	1.03	6.35

* $p < .05$ ** $p < .01$ *** $p < .001$

특기할 점은,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 양식이 학업성취도에도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부모와 자녀사이의 자유로운 토론 및 협상을 근간으로 한 개방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존감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희수, 2003; 김희수 외, 2005; Birch & Ladd, 1997; Osipow et al., 1976), 이 같은 양육방식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움으로써, 주요 교과에서 높은 성취를 거두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Fallahchai와 Darkhord(2011)는 부모-자녀 간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의 자녀일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아울러 가정의 SES→개방적 의사소통→교사관계의 매개효과는 Sobel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Z=3.06, p < .01$), 나아가, 가정의 개방적 의사소통→교사관계→직업포부수준의 매개효과 또한 유의한 것($Z=1.97$)으로 나타났다($p < .05$).¹⁰⁾ 그러나 가정

10) 본 연구에서 사용한 Sobel 검정공식과 이중매개 검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frac{ab}{SE_{ab}}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a=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b=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SE_a, SE_b = a$ 또는 b 의 표준오차

$$Z = \frac{abc}{SE_{abc}} = \frac{abc}{\sqrt{a^2 b^2 SE_c^2 + a^2 c^2 SE_b^2 + b^2 c^2 SE_a^2}}$$

의 SES→개방적 의사소통→교사관계→직업포부간의 이중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식별되지 않았다($Z=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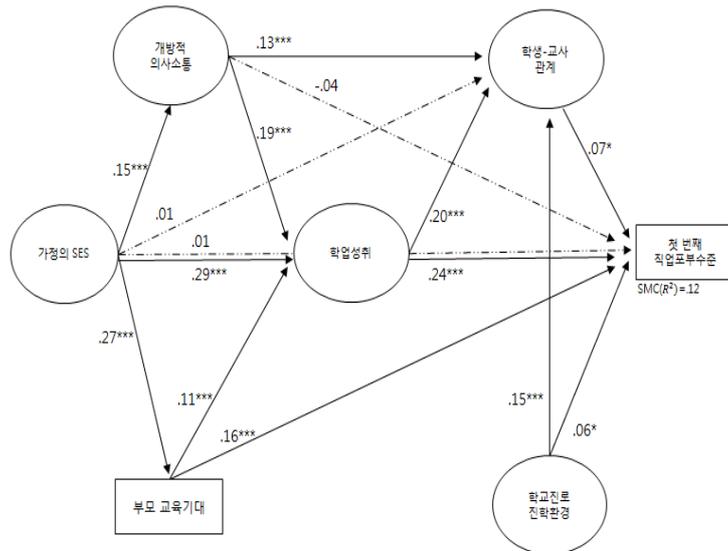


그림 3. 구조모형의 표준화 추정치

한편, 가정의 SES는 교사관계와 자녀의 직업포부수준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직업포부수준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학업성취와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녀의 학업성취수준은 교사와의 관계에도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학업성취 수준이 뛰어나며, 학교 내에서 교사의 지지를 받는 학생들이 또래에 비해 포부를 크게 지닐 수 있으리라고 유추할 수 있다. 요컨대, 가정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 자체로 자녀의 높은 직업포부수준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녀의 직업포부수준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학교 진로진학환경은 학생-교사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학생의 진학 및 특기 적성 계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학교의 학생-

a=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b=매개변수와 매개변수간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c=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SE_a SE_b SE_c = a, b, c$ 의 표준오차

교사 간의 높은 상담빈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나이가 이러한 학교차원의 지원을 받는 학생일수록, 높은 직업포부수준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집단비교 모형

성별에 따른 직업포부수준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검정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형태동일성 검정(test of configural invariance)

형태동일성은 제시된 연구모형이 비교하는 각 집단에서 동일하게 작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집단 간 연구 모형 적합도 간의 차이가 거의 없으면서 적합한 수준의 모형 적합도를 유지한다면, 본고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이 각 비교 집단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먼저 각 집단에서 기저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그 차이는 미미하였으며($\Delta\text{NNFI}=.014$, $\Delta\text{CFI}=.009$, $\Delta\text{RMSEA}=-.007$), 각 집단의 모형적합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의 형태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형태 동일성 검정

Test	χ^2	df	NNFI	CFI	RMSEA
Configural invariance	414.940	154	.931	.956	.029
baseline model: male	181.994	77	.939	.961	.037
baseline model: female	232.948	77	.925	.952	.044

2) 측정동일성 검정(test of metric invariance.)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측정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 작업은 집단 간 경로계수를 비교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가 각 집단 내에서 동일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이 후 경로계수에

서 발생하는 차이가 측정도구의 오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가정할 수 있다.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은 각 집단의 요인 적재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후, 기저모형과 동일화제약 모형간의 χ^2 차이 검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충족된다. 그런데 χ^2 차이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NNFI 및 RMSEA 지수와 병행해서 판별할 필요가 있다(Hong et al., 2009).

표 4
동일성 검정

Test	χ^2	df	NNFI	RMSEA
Configural invariance(baseline model)	414.940	154	.931	.029
Full metric invariance	428.136	162	.933	.029
Full structural invariance	453.127	175	.936	.028

분석 결과, χ^2 값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Delta\chi^2(8) = 13.196, P<.05; \chi^2_{\text{입계치}}=15.51$),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측정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다(표 4 참조). 모형 적합도 역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제시된 모형이 자료와 적절히 잘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구조동일성 검정(test of structural invariance.)

본 연구모형의 형태 및 측정동일성이 모두 성립되었으므로, 구조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추정하고자 하는 13개 경로 모두에 집단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한 구조 동일성(full structural invariance) 모형과 측정동일성(full metric invariance)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χ^2 값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Delta\chi^2(13) = 24.991, P<.05; \chi^2_{\text{입계치}}=22.36$) 구조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참고). 구조동일성 가정이 기각되었으므로 집단 간 유의한 경로계수를 확인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개의 경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참고). 즉, 가정의 SES 수준은 남학생들의 직업포부수준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끼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상급학년에 비해 학업성적 및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즉, 상급학년에 비해 포부 수준을 높게 지닐 개연성이 높는데, 이러한 포부수준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e.g., 김정숙, 2006; 심경섭, 설동훈, 2010).¹¹⁾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도전성이 강조되는 직업을 선호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가정활동 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포부수준을 조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의사나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직을 희망할수록 가정차원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요컨대, 남학생의 직업포부와 가정의 SES 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식별된 것은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남학생들의 포부수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비록 희망직업에 불과할지라도 남학생들의 포부수준이 가정배경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진로진학환경은 학생-교사관계와 관련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여학생 집단에게서 영향력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남학생 $b=.05$, 여학생 $b=.125$).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여학생들의 기질 및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주지하듯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좀 더 활발하게 주변과의 의사소통에 참여하는데(e.g., 이금, 박옥임, 이경주, 1994; 이정우, 김규원, 1989; 조은경, 1994; 최규련, 1998), 이러한 성향이 교사관계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

구조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로

Parameter	남학생		여학생		$\Delta \chi^2$ (Δ df)
	b	β	b	β	
직업포부수준 ← 가정의 SES	7.359* (3.09)	.15	-5.27 (2.89)	-.10	9.564**(1)
학생-교사 관계 ← 학교진로 진학환경	.05* (.02)	.09	.125*** (.03)	.22	5.721*(1)

* $p<.05$ ** $p<.01$ *** $p<.001$

11)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직업포부수준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 어

본고는 꿈의 크기조차 지역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는 작금의 세대아래 의사소통양식의 중요성을 제고하여, 부모 자녀사이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교사관계 및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의사소통양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에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목도되었다. 다음으로,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양식은 두 번째 연구가설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학생-교사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이렇게 강화된 학생-교사관계는 직업포부수준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가설과 관련해서는, 가정의 SES→개방적 의사소통→교사관계→직업포부수준 사이의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가정의 SES→개방적 의사소통→교사관계 그리고 개방적 의사소통→교사관계→직업포부수준 사이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의 SES 수준과 직업포부수준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남학생 집단에게서만 식별되었다. 아울러 직업포부수준에 대한 학교 진로진학환경의 영향력은 여학생 집단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두 경로의 집단 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밖에, 가정의 SES는 직업포부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이외에도, 부모 교육기대 및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 자체가 자녀의 높은 직업포부수준을 인당해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 교육기대나 학업성취와 같은 변수들을 통해 직업포부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술한 결과는 가정배경 수준에 따라 부모-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양식이 상이한 양상으로 존재하며, 이것이 계층 간 자녀의 성취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권리의식과 자기주도성을 체득한 아이들이

학업성취도 높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서도 우호적인 교사관계를 형성, 높은 직업포부 수준을 견지하면서 고교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근자에 들어서는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의해 교사의 평가 및 역할 그리고 학교 내 경험이 중시되고, 리더십과 도전성 등과 같은 학생들의 비인지 능력(non-cognitive skill)이 재평가 받고 있다(이영대, 2010). 이점에서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의사소통기술 및 권리의식 증진 등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녀의 학업성취 이외의 기타 교육적 성취격차로 표출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대입전형이 도입되고 있는바, 적극적으로 교내행사에 참여하고 교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아이들이, 추후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는 성취격차 기제로서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이 가져다줄 수 있는 다양한 편익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가정 내 의사소통양식에 따른 청소년들의 성취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교사관계 및 학업성취가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체득한 자기주도성 및 권리의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부모교육 및 학교차원의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지도에 있어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양식의 중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자녀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부모로 하여금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부모가 자녀에게 수동적인 수용을 강요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능동적 이해를 촉진하는 개방적 의사소통으로 유도하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양한 경로를 매개로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여파를 참작하여, 소득격차가 곧 꿈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빈곤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가정 내 개방적 의사소통양식을 측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권리의식 또는 제약의식과 같은 개념은 설명기제로밖에 논할 수 없었던 제한점이 남는다. 아울러 패널자료의 특성상 잠재변수의 구성에도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모형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10.10.18). “내 꿈요? 글썄요” 부모가 가난할수록 자녀들의 꿈도 가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180256355&code=940100에서 2012년 6월 2일 인출.
- 공운정 (2011). 청소년의 성적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역할과 직업포부의 관계. **청소년 상담연구**, 19(1), 127-141.
- 김경주, 송병국 (2011). 청소년 진로포부 영향 요인 구조 분석. **직업교육연구**, 30(2), 91-115.
- 김경화 (2011).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남녀고등학생의 지각된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소외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3), 191-213.
- 김성환, 박상우 (2008).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16(3), 119-214.
- 김양분, 임현정, 신혜숙, 남궁지영, 신종호, 홍세희 (2010). **한국교육종단연구(VI)** (연구보고 RR 2010-2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숙 (2006). 학생의 직업가치에 관한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79-102.
- 김진경, 유안진 (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 **아동학회지**, 23(2), 121-135.
- 김진경, 유안진 (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 질. **아동학회지**, 23(2), 121-135.
- 김희수 (2003). **신교육심리학**. 서울: 한울출판사.
- 김희수, 홍성훈, 윤은중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37-64.
- 민하영, 이윤주, 이영미 (2004). 대학생의 내면화 및 외현화된 행동문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대학생활적응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7-27.
-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 서경희 (2008). 성별 의사소통스타일의 습득: 언어사회화 과정. **人文學研究**, 14, 113-140.
- 송영숙 (1998).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및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경섭, 설동훈 (2010).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직업 포부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인구학**, 33(2), 33-59.

- 어윤경 (2009). 대학생의 직업포부 변화와 진로상담이 개인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상담학 연구**, 10(3), 1555-1571.
- 유백산, 황여정 (2011). 일반계 고등학생의 비교과영역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상경험 및 임원경험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41, 61-92.
- 유정미, 김지현, 황매향 (2004). 중고등학생의 직업포부 변화에 관한 연구. **교육학 연구**, 42(2), 315-333.
- 유홍준, 김월화 (2006). 한국 직업지위 지수. **한국사회학**, 40(6), 153-186.
- 이경상, 강영배, 조주연 (2006).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06-R01-1).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금, 박옥임, 이경주 (199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6-25.
- 이명진, 봉미미, 권순구 (2010). 저소득층과 중산층 청소년의 진로포부 예측변인 비교. **교육심리연구**, 24(2), 432-447.
- 이성식, 정철영 (2004). Gottfredson 이론에 기초한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대안영역과 직업포부.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6(3), 43-58.
- 이정우, 김규원 (198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7(3), 147-158.
- 이종범 (2005).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가족관련 변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4), 25-42.
- 이현주 (2005).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몰두와 진로포부에 대한 사회적관계성·진로장애 인식·진로장애대처효능감의 역할. **교육학연구**, 43(1), 187-211.
- 이영대 (2010). 입학사정관 제도의 도입과 학교진로교육의 과제. **The HRD Review**, 13(2), 117-147.
- 장해순 (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일반**, 13(2), 104-130.
- 정윤경 (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개인, 가정,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59-305.
- 정정은 (2004).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지혜 (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직업 포부 결정 요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은경 (1994).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상지대 논문집**, 15, 303-338.
- 최규련 (1998).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학회지**, 3(1), 120-142.
- 하경화 (2002). **어머니의 노동시장경력이 딸의 직업포부 및 획득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3). 중고등학생의 직업인식 발달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3-12.
- 波多野諠余夫, 稻垣佳世子 (2001). **유능감을 키우는 교실: 무기력의 심리학**. 한양대 사회인지발달연구모임 (역). 서울: 정민사.
- Admas, C. R., & Singh, K. (1998).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chool learning variable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frican 10th graders. *The Journal of Negro Education*, 67(1), 48-66.
- Arbuckle, J. L., & Wothke, W. (1999). *AMOS 4.0 user's guide*. Chicago: SmallWaters corporation.
- Ashby, J. S., & Schoon, I. (2010). Career success: The role of teenage career aspirations, ambition value and gender in predicting adult social status and earning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 350-360.
- Barnes, H. L., & Olson, D. H. (1982).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In D. H. Olson et al (Eds.),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 Bajema, D. H., Miller, W. W., & Williams, D. L. (2002). Aspirations of rural youth.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43(3), 61-71.
- Behnke, A. O., Piercy, K. W., & Diversi, M. (2004).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of latino youth and their par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6(1), 16-35.
- Berk, L. E. (2009). *Child development* (8th ed). Boston, MA: Pearson Education.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 61-79.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Eccles, J. S. (1994). Understanding women's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choic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4), 585-609.
- Fallahchai, R., & Darkhord, F.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with academic achievement in Bandar Abbas city male and female students of third grade guidance school. *Journal of Life Science and Biomedicine*, 2(2), 29-33.
- Ganzeboom, H. B. G., Greef, P. M., & Treiman, D. J. (1989). *A standard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s*. Revised version of 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Guttman, & Juli, M. A. (1991). Issues i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females: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and guidance practices. *Guidance & counselling*, 6(3), 59-75.
- Hansen, D. O., & Haller, A. O. (1973). Status attainment of costa rican males: A cross-cultural test of a model. *Rural Sociology*, 38(Fall), 269-282.
- Hu, L. Z.,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line, R. B. (2011).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Y: Guilford Press.
- Lareau, A. (2003).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Berkeley an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ttle, T. D., Lindenberger, U., & Nesselroade, J. R. (1999). On selecting indicators for multivariate measurement and modeling with latent variables: When “good” indicators are bad and “bad” indicators are good. *Psychological Methods*, 4, 192-211.
- Lober, R., & Stouthamer-Loeber, M. (1988). Development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Meinster, M. O., & Rose, K. C. (2001). Longitudinal influences of educational aspirations and romantic relationships on adolescent women's vocational interes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 313-327.
- O'Brien, K. M., Gray, M. P., Touradji, P. P., & Eigenbrode, S. P. (1996). The operationalization of women's career choices: The career aspiration scale. In V. S. Solberg, & K. M. O'Brien (Eds.), *Promoting women's career development into the next millenium and beyond*. Symposium conducted at the 104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Ontario, Canada.
- Osipow, S. H., Carney, G. C., & Barac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 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23-243.
- Schoon, I., & Parsons, S. (2002). Teenage aspiration for future careers and occupational outcom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 262-288.
- Sewell, W. H., & Hauser, R. M. (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 achievement in the early career*. NY: Academic Press.
- Sewell, W. H., Haller, A. O., & Ohlendorf, G. W. (1970).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process: Replication and revi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6), 1014-1027.
- Staff, J., Harris, A., Sabates, R., & Briddell, L. (2010). Uncertainty in early occupational aspirations: Role exploration or aimlessness?. *Social Forces, 89*(2), 659-683.
- Trice, A. D., & King, R. (1991) Stability of kindergarten children's career aspirations. *Psychological Reports, 68*, 1378-1378.
- Trieman, D. J. (1977). *Occupational presti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 Walkerdine, V., Lucey, H., & Melody, J. (2001). *Growing up girl. psychosocial explorations of gender and class*. London, UK: Palgrave.
- Wang, J., & Staver, J. R. (2001). Examining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of science education and student career aspir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4*, 312-319.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styles according to family background on teacher-students relationships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Yu, Baeksan · Shin, Suyeong*

Us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styles on teacher-students relationships,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among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igher the parents' SES level, the higher the level of open family communication styles were. In addition, the open family communication style affected the teacher-students relationship, and this teacher-students relationship also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occupational aspiration. Furthermore, the Sobel test results revealed that the open family communication style was a significant mediator of the effect of parent's SES on the teacher-students relationship. There were also indirect influences of the open family communication style on occupational aspiration through the teacher-students relationshi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exists in a different form when it comes to parent's SES, and this can lead to an achievement gap between classes. From this finding, several policy measures have been proposed to mitigate the gap between youth achievement levels.

Key Words : occupational aspirations, teacher-student relationship,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open family communication style

투고일 : 6월 11일, 심사일 : 9월 3일, 심사완료일 : 9월 25일

*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부록 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부의 직업	1														
2. ln_가구소득	.320**	1													
3. 상호이해	.052*	.067**	1												
4. 소통장벽	.053*	.073***	.635***	1											
5. 대화빈도	.049*	.070**	.589***	.646***	1										
6. 부모기대교육수준	.153***	.134***	.090***	.076***	.103***	1									
7. 국어	.073***	.053*	.123***	.111***	.130***	.120***	1								
8. 영어	.155***	.157***	.166***	.113***	.154***	.131***	.412***	1							
9. 수학	.108***	.112***	.104***	.078***	.104***	.151***	.188***	.341***	1						
10. 고민상담	.067**	.029	.110***	.167***	.111***	.029	.051*	.081***	.131***	1					
11. 애정관심	.073***	.045*	.148***	.136***	.117***	.089	.127***	.152***	.149***	.493***	1				
12. 존경정도	.044*	-.020	.083***	.065**	.046*	-.003	.076***	.074***	.083***	.451***	.551***	1			
13. 진화환경	.039	.020	.144***	.124***	.128***	-.032	.035	.046*	.030	.041	.076***	.097***	1		
14. 특기취성	.008	.005	.141***	.105***	.054*	-.027	-.043	.029	.102***	.120***	.110***	.155***	.514***	1	
15. 첫 번째 직업포부수준	.090***	.059*	.044	.022	.073**	.218***	.151***	.158***	.280***	.090***	.113***	.077**	.048	.066**	1
평균	42.94	5.71	3.50	3.31	3.54	16.55	3.20	3.01	2.84	2.49	2.88	2.52	3.86	3.30	63.95
표준편차	13.34	0.51	0.87	0.97	0.90	1.40	0.80	0.99	1.11	1.01	0.98	1.08	1.08	1.19	13.98
왜도	0.98	-1.07	-0.35	-0.18	-0.33	1.19	0.14	0.05	0.08	0.38	-0.14	0.17	-0.65	-0.05	-0.62
첨도	0.85	9.32	0.05	-0.52	-0.18	1.88	0.17	-0.44	-0.76	-0.42	-0.34	-0.75	-0.43	-1.00	0.36